

대림 제4주일/주님 성탄대축일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성탄 미사 안내

- 대림 제4주일 미사: 12/24(주일) 오전 11:00.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12/24(토) 오후8:00, 미사책 127쪽.

- ※ 예물 준비: 구유 예물, 미사 예물, 성경쓰기 예물
-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25(월) 오전11:00, 미사책 141쪽.
- ※ 예물 준비: 미사 예물, 기도 선물.

■ 2017년 성탄 행사 안내

- 주제: “나눔”(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 기쁨 나눔 : 12월 24일 성탄 성야미사 후, 성당 친교실.
- 기도 나눔 :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성당 친교실.(대림 시기 동안 가정별 기도 나눔, 대상가정에 성탄카드전달 등)
- 재능 나눔 : 12월 25일 성탄미사 후, 성당 친교실.(재능 기부+재능 잔치)
- 선물 나눔 : 12월 25일 성탄미사 전에 선물봉헌, 미사후 친교실에서 공동의 선물나눔.(\$20 내외의 선물, 무기명)

■ 홀리 트리니티 본당 신부님의 성탄절 선물에 감사합니다.

■ 이민자들의 날 미사 안내

- 일시: 2018/1/14(주일) 정오 12:00, 다과회 오후1:00-2:00.
- 장소: Cure of Ars Catholic Church, 9401 Mission Rd, Leawood, KS 66206.

■ 성당행사 관련 사진 자료를 수집합니다.

- 내용: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례부장(박 로마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taeju@postech.ac.kr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17	51명	246달러	620 달러
김병철, 김광일, 김정원, 이영민, 홍순익 (총 5세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89	219	160	93
성탄성야	99	210	163	102
성탄 낮	102	107	175	484
차 주	114	217	153	199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12/24)	김대연 요셉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민서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성탄성야 (12/24)	박태주 로마노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복사단 전원 복사단 전원
성탄 낮 (12/25)	최은미 아녜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복사단 전원 복사단 전원
차 주 (12/31)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애찬 봉사자

금 주	장보혜, 장유정, 김수연
성 탄	행사 1조
차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성 탄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대림 제4주일, 주님 성탄대축일

-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2017년 12월 24, 25일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대림제4주일]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서 주님 종들을 뽑으시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느님께서 교회가 동정 마리아를 본받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룩하고 흠 없는 거례의 어머니로서 언제나 기뻐하도록, 풍요로운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성탄 성야]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함께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성탄 낮] 하느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의 총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습니다.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대림제4주일 (12월 24일)

제 1 독 서 : 사무엘기 7,1-5.8c-12.14ㄱ.16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 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6,25-2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저는주님의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저에게 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복음 1,26-38

성탄 대축일 밤 (12월 24일)

제 1 독 서 : 이사야서. 9,1-6

화 답 송 :

◎ **주오늘우리구원자주그리스도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2,11-14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오늘 구원자주그리스도태어나셨다.◎알렐루야.

복음 : 루카 복음 2,1-14

성탄 대축일 낮 (12월 25일)

제 1 독 서 : 이사야서. 52,7-10

화 답 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 서 : 히브리서 1,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여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복음 1,1-18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 대축일을 맞아 교회는 네 번에 걸친 미사를 통해 다양한 독서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네 미사의 복음들에 관해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탄 전야 미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 다윗에게 약속된 자손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하나님 축복이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오면 꼭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신약성경 마태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윗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이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육신적 가문을 넘어서는 분, 곧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탄 전야 미사를 거쳐 성탄 밤 미사로 넘어가면 루카가 전한 복음이 울려 퍼집니다. 루카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첫아들 예수를 낳았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루카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그분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여관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천대받는 이들 가운데 머무십니다.

새벽 미사 복음으로 우리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

수님을 찾아 나선 루카 사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표지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분을 감싸던 것이 비단이 아니라, 포대기였으며, 그분이 누워있는 곳이 왕자들이나 공주들이 눕는 자리가 아니라 짐승들 먹이 그릇인 구유였습니다. 거기다 그분을 알아본 이들 또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외칩니다. 그분이야말로 백성들의 구원자, 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이들 가운데 머무십니다.

낮 미사 복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명백히 듣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머물게 된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육을 취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는 원리였던 말씀이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신 분,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새로운 계약을 통해 다시금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오늘 읽게 되는 네 편의 복음들은 한결 같이 나약하고 천대받는 인간들 가운데 머물게 된 하나님, 임마누엘을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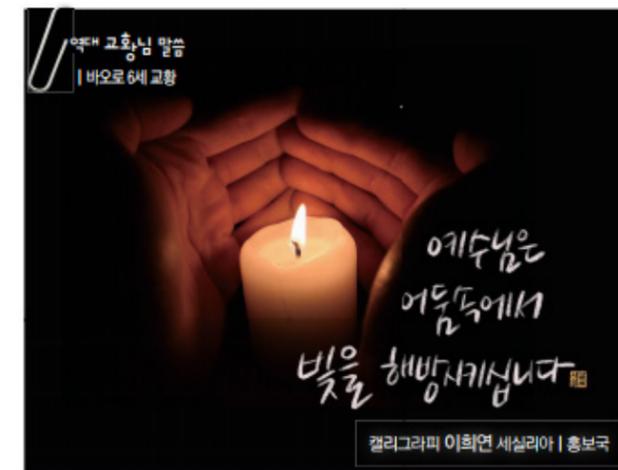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평소 로사를 연모하던 요셉이 하늘 맑던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내 고백했습니다. “저… 로사씨, 제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자 로사는 비로소 요셉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신비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실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속 깊은 생각과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계시종교’라고 하지요. ‘계시’란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며 이 세상에 말씀을 건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몹시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믿음의 선조들과 여러 예언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모조리 내어주셨고,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 -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뵈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

가 되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며, 우리가 고독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겨워할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 바로 계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2).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왜?

왜일까요?
굳이
구유
가난한 목수
폭력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다면.
이 모든 이유는 그것에 있지 않을까요?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루카 2,12)

